

# 태양광 발전 시설 증가에 농민들 울상

태양광 발전시설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산지, 저수지, 농지가릴 것 없이 태양광 설비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심각한 자연경관 훼손뿐 아니라 농지잡식에 따른 식량 안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KBS에 따르면 전북 고창의 한 농촌 마을은 한 외지인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 시작한 뒤 고즈넉한 농촌 마을의 풍경은 사라지고 주변 농경지가 온통 태양광 패널로 점령됐다. 평야 지역은 일조량이 많고 땅값마저 싸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태양광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주민들이 농지를 팔고 떠나면, 그 농지에 다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서 일부 농촌에선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는 지가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도 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땅은 농지, 임야 등 기존 토지 종류와 상관없이 일괄 잡종지로 전환되는데 개발 시 전용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농지, 임야에 비해 규제가 약해 10배 이상의 지가 상승 등 토지 매매 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고창군 농지매수 가격이 평당 1만원에서 많게는 3만 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가가 상승하면 농지 임대료도 상승하기 때문에 농업 황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봉업자들도 볼 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역의 한 양봉업자는 “태양광 패널 반

사광에 의한 빛 공해로 벌통을 찾지 못한 꿀벌들이 폐사하거나 전자파로 인해 벌꿀 수확량이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태양광 발전 설비의 폐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수명을 다한 태양광 모듈의 처분도 문제이다.

‘새전죽신문’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해 수명을 다해 처리대상인 폐 모듈은 29톤으로 추산된. 2022년도에는 1,612톤, 2028년부터는 연간 1만톤 이상의 폐 모듈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처리기준에 대한 법안 마련은커녕 지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 재활용 가능한 물질이 90% 이상이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핵심부품인 셀은 희유금속에서 추출한 물질을 이용한 반도체인 데 이에 대한 처리기준을 정부가 마련하지 못한 탓에 대부분 매립하고 있거나 농지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다. 이는 경관 훼손은 물론 토양오염과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져 태양광 설비가 어떤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폭염에 최대전력수요 기록 경신... “원전 추가 가동”

내주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전력수요 증가에도 발전설비가 충분히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기상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에도 폭염이 지속하면서 최대전력수요가 8천830만 kW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8천830만kW는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여름철 하계수급대책’에서 예상한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다. 역대 최고치인 올해 2월 6일의 8천824만kW보다 높다.

정부는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둘째, 셋째 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늘었다. 통상 7월 말까지 이어지는 장마가 올해에는 45년 만에 가장 빨리 끝났고 더위가 일찍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평년에 약 32일인 장마는 올해 중부지방 기준으로 16일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을 높여 급증한 전력수요를 충당하기로 했다. 성급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친 셈이다. ‘동아일보’는 이날 산업부가 “이번 주 토요일(21일) 원전 1기를 추가로 가동해 무더위가 이어지더라도 당장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전력 구매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5일 내놓은 ‘여름철 하계수급대책’에서도 “정비 중인 원자력발전소 수가 줄어들어 최대 전력수요에 도달하더라도 최대 공급능력은 1억71만 kW로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실제로 원전 가동률은 올해 3월 54.8%에서 매달 높아져 6월에는 67.8%로 나타났다. 현재 24기 중 16대가 가동되고 있으며, 8월에는 18대가 가동될 예정이다.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원전으로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면서 옮겨올 원전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졌고, 결국 최악의 전력 수급 비상사태가 벌어졌다.”며 “원전 수가 늘어나 전력 수요 충당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 ✓ 최신 프레임 머신에 의한
- ✓ 정확한 프레임 교정
-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 Towing & Rent Car 알선
- ✓ FREE ESTIMATE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